



건축가라는 작가 정신을 버리지 않고 생활하는 것은 직업적인 면에서 내지는 경제적인 면에서 필연적으로 희생을 요구하는 것인가라는 데 대해서는 여러가지 견해가 있을 것이다. '일하며 생각하며' 라는 칼럼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아마도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갈등에 대한 그러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 이러한 주제로 이야기하는 것은 좀 구차스러워질 가능성이 많지 않겠는가. 그러나 지금까지 일하고 살아오면서 느꼈던 점이 있다면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한마디하는 것도 건축하는 사람의 책임일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조만간 건축 설계 분야에서 활동할 후배들이 초기에 거치게 되는 현 교육현실에 대해서 생각한 점을 몇자 적고자 한다.

현실로부터 이상으로

To the ideal from the real

주영정 / 예조종합건축사사무소
by Joo Young-Jung

수없이 많은 건축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 소위 작품을 한다고 일컬을 수 있는 건축가로서 자란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나 유명 작가로서가 아니라 최소한 책임감 있는 건축인을 양성하는 것은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학생들 스스로 이론적인 내용뿐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 여건을 충분히 알아두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학교나 설계사무소에서 그들을 접하게 되는 우리들도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

많은 학생들이 건축과로 진학한다. '멋 있어 보여서', '나는 재능이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또는 '별다른 생각은 없지만 제일 무난할 것 같아서' 라는 것들이 진학 이유인 것 같다. 초기의 이러한 생각들은 설계 수업을 받으면서 그리고 졸업한 뒤 실무 경험을 통해 많은 정신적 명암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 개인적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허무감과 자괴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건축이라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닌 경우에 즉 건축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할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 나라의 교육제도는 건축을 좋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혹시 건축이란 지고지순한 어떤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수련을 쌓아야 되는 것이라고만 단정짓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사회변화나 정치적 영향력에 있어 능동적이지 못하고 수동적자세로 일관하는 모습만 강조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독재자의 권위에 아부하는 건물을 짓는 경우처럼) 또는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너는 왜 나를 괴롭히는가' 라고 행정제도나 사회분위기를 탓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대학이나 전문대에서의 건축교육이 역사에서부터 디자인, 시공, 환경설비에 이르기까지 너무나 전반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세분화된 전문화가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전문가로서의 자각을 느끼게 하는 인성교육이 부족한 점도 있는 것 같다.

통계적으로는 전체 건축과 학생들 중 40~45%정도는 건설 회사로, 15~20%정도는 설계 사무소로, 나머지는 유학이나 대학원을 진학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일견 설계 사무소로 가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졸업하는 학생들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현 상태에서 그러한 비율은 당연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현실적인 벽에서 일차로 걸러진다고 할까 출강을 통해 학생들의 설계 지도를 하다 보면

자유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창의력을 유도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느낀다. 작용과 반작용이 있듯이 오히려 엄격한 틀과 방향 제시를 통한 수업이 학생들의 자발적인, 나쁘게 말하면 반발적인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아닌지. 그러나 현재의 공학 교육제도하에서는 설계수업이 다른 수업과의 형평성에 의해 상대적으로 시간 수가 빈곤하여 학생 개개인에게 프로그램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외국의 경우 설계수업의 비중은 우리나라 3~5배에 달한다. 6년정도의 대학교육외에 재교육기간까지의 건축교육을 대학이 거의 전담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졸업후 일정기간 설계사무소의 훈련기간 및 재교육을 거쳐 자격증을 주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미국, 일본, 우리나라의 학제는 대학에서의 교육기간이 짧고 설계사무소의 재교육기간을 상당기간 두고 있는데 국내의 경우는 설계사무소의 여건상 질이 높은 재교육을 수행하는 것은 무리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건축교육의 주된 특징은 방대한 건축관련교과중에서 환경, 설비, 시공, 재료, 구조, 역학 등이 별도의 학교에서 수학토록 되어 있고 건축교육은 대학체제가 아닌 Ecole에서 수행되는데 있다. 즉 건축은 시나 음악, 미술 등과 같은 Beaux-arts로서 완전 분리되며 건축관련 과학부분은 예술로서의 건축과는 이분되어 독자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미(美)의 판단기준이 기호의 변화에 따르는 상대적인 것이나 아니냐하는 페로와 블롱델의 유명한 친구 논쟁 이후로 예술은 독자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었고 과학기술과는 분리되어 왔다.

프랑스의 건축제도의 또다른 특징은 전체 교과목에 할당되는 시간중 1/3은 대학의 재량에 맡기며 무엇보다도 교수진이 모두 실무를 겸하는 건축가들로 구성되어 있어 이론과 실질적인 측면이 연계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것이다. 국내처럼 교수 겸직이 불가능한 점은 여러 면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다. '학문적 수련을 거치지 않고 손으로 얻어지는 기술만을 얻고자 하는 건축가는 수고로움과 관련된 권위있는 자리에 결코 오를 수 없다. 반면 이론과 학문적 수련에만 의존하는 건축가는 실체가 아닌 그림자만을 사냥하는 것이다. 양자에 정통한 지식을 얻는 건축가만이 목표를 보다 빨리 얻게되고 권위도 얻게 된다' 비트루비우스의 이러한 말은 요즘에도 음미할만한 것 같다.

과거 학부시절과 실무를 지나온 나의 경험과 비교하여 볼 때 앞으로 건축설계에 몸담을 후배들은 아마도 더욱 더 치열한 경쟁에 부딪히게 될 것이며 세분화되고 정렬한 법규 및 새로운 전문지식들과 싸워야 할 처지다. 사

회변화의 속도가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화되고 문화예술 쪽의 대중적 수준이 매우 높아진 오늘날에는 소위 작가군의 반열에 들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몇 배나 더한 경쟁을 극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유행하는 사조를 소화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 건축의 '자리 찾기'도 시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의 작품에서 자주 나타나는 기계 미학의 모방적 디자인은 현대 모던건축의 단편적인 신앙에 바탕한 건축 교육의 산물일 수 있다.

'이제부터 우리는 새로운 균형을 창조해 낼 수 있고 역사주의에 의존하지 않아도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으며, 실리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건축에서의 수와 논리의 복잡 미묘한 성격을 탐구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1920년대 문화적 격동의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건축의 오브제들이 태어나고 오늘날처럼 기술이 고도로 발전함과 함께 건축가들은 새로운 임무에 직면하게 되었다. 즉 건축가들은 오브제들의 다원적 성격을 종합할 수 있어야 하며, 또 한편으로는 건축과 장소에 대한 창조적인 사고를 구체화할 수 있는 공간에 대한 독창적인 사고를 개발시켜나가야 한다.' 위와 같은 포르잡박의 서술은 그러한 편향된 분위기부터 탈출하라고 권고하는 것이다. 창조적인 사고와 좋은 디자인에 대한 신념은 초기 건축 교육과정에서 확립되어야 할텐데 졸업 이후의 실무는 루틴한 작업에 매몰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우리 사무실뿐만 아니라 여타 사무실의 경우에도 세미나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가끔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과연 내 앞의 이 친구들이 언필칭 건축가로서 몇이나 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 초조하기도 하고 되도록 선배들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든다. 요즘같이 빠르게 변화하는 세계에서 건축가로서 인정받는 것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수없이 많은 건축과 학생들이 졸업을 하지만 그 중에서 소위 작품을 한다고 일컬을 수 있는 건축가로서 자란다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이다. 그러나 유명 작가로서가 아니라 최소한 책임감 있는 건축인을 양성하는 것은 교육제도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학생들 스스로 이론적인 내용뿐 아니라 실제적인 사회 여건을 충분히 알아두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물론이지만 학교나 설계사무소에서 그들을 접하게 되는 우리들도 그들을 훈련시키는 일에 좀 더 부지런해져야 한다는 생각이다.